"위기를 넘어 축산업의 새시대를 열자"

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
축산관련단체협의회

제공일 : 2021. 11. 19
제공자 :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
쪽 수 : 1P
별첨자료 : 없음

담당 : 이정훈 축단협 대외협력팀장

전화	02)588-7055	팩스	02)584-5144
이메일	kdbfa@chol.com		

국방부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 건의

- 축산생산자단체장,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 면담 -

❑ 축산생산자단체장들*은 11월 19일(금)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(경남 김해시갑, 더불어민주당)과의 면담을 갖고,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하였다.

*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(한국낙농육우협회장),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(축단협 부회장),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

❑ 이날 면담에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현행 농·축·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류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하였다. 아울러,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(마리당 → 부위별·용도별)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(滯貨),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.

❑ 특히, 생산자단체들은 부실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고, 전시·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(농축수협)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❑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"군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품질과 국산 농축수산물 이용활성화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한다"면서, "최소한 당초 국방부에서 약속한 단계적 농·축·수협 수의계약물량('22년은 '21년의 70%)은 지켜줘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"고 덧붙였다. 무엇보다, 사태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.

❑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"결국 금번 대책은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"면서, "산업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은 요원함을 명심, 식량안보와 장병 건강증진 차원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"고 밝혔다. "끝"